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23호](2016. 4/5)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나가츠키 교무장, 삼광사 주지스님에게 양국간 불교발전 교류의사 제안!

나가츠키 교무장, 삼광사 주지 무언스님 예방, 양국 불교발전방안 환담

2016년 4월 3일 총본부의 나가츠키 교무장이 내한, 한국 불교계와의 교류를 위해 부산에 소재한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언스님을 예방했다. 삼광사 무언스님은 나가츠키 미즈오 교무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한일간 불교 발전과 우호증진 방안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나가츠키 교무장은 신노엔과 삼광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자고 제안하였고, 무언스님도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이 소식은 BTN 4월 4일 종합뉴스에 방영되었다.

나가츠키 교무장, 부산정사에서 부산교도들과 대화 나누어

총본부 나가츠키 교무장이 4월 2일 처음으로 부산정사를 방문, 교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부산정사에는 50여명의 교도들이 모여 나가츠키 교무장을 맞이했다. 나가츠키 교무장은 부산정사가 종정스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건립되었으며, 낙경법요는 교도들의 정진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종정스님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실천을 강조했다.

나가츠키 교무장은 부산정사 방문에 앞서 지역사회 공헌기관 대표자격으로 연제구청장의 초청을 받아 연제구 한마당 축제에도 참가하였다.



<연제구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나가츠키 교무장>

신노엔, 연제구 소재 고교생 15명에 장학금 전달

신노엔 총본부의 마츠나가 국제부 차장이 3월 25일 연제구청에서 연제구 소재 고교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이날 부산정사를 참배하여 1시간 내외의 간담을 했다. 학생들은 신노엔의 수행방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연제구 소재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식>

입교 80주년, 성지순례 다발적으로 발생

입교 80년을 맞이한 금년 10월에는 성지단체참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소그룹별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6월 중순에는 서울포교소 교도 20여명이 5박 6일간의 여정으로 단참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참배가 계획되고 있다. 입교 80년을 맞이하여 총본부에는 매일 수천명의 교도들이 참배하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다.

서울포교소, 부처님오신날에 오픈하우스 개최

서울포교소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11시 범요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빔밥 공양이 제공되었고, 경내에서는 청년교도들이 주최한 바자회가 열렸다. 맑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오픈하우스가 개최된 이날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았다.

청년교도 모임 Y's Day, 부산정사에서 열려

2016년 신노엔 청년 모임인 Y's Day가 4월 7일 부산정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합에서는 '오야소노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원점', '출발', '실천'의 슬로건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한국청년들은 11월 신초지 낙경에 맞추어 청년단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교도 모임 2016년 Y's Day>

<이달의 유모어 : 춤 시리즈>

1. 스님들이 잘 추는 춤. 특히 상구보리에 응할 때 잘 해야 하는 춤은?
2. 스님들이 추어서는 곤란한 춤은?

<정답은 마지막 쪽에>

[체험담] 23년간 묵묵히 기다려준 스시오야의 참마음에 감동, 신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조현철 교도!

신노 가르침에 맺어진 것은 1993년입니다. 당시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저는 해외파견연수로 1년간 요코하마 국립대학에 갔었습니다.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합

초청해 준 분은 스시오야인 아베슈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방문 후 2개월간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연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과 딸에게도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주었습니다.

당시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신 아베 교수 부부가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형제 간에도 하기 어려운 배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노엔에 가보지 않겠느냐는 아베 교수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고 1993년 5월 타치카와의 정사에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 법회 참석 후 귀가 길에 문턱 "신노엔은 살아있는 동안 극락정토 즉 상락아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 같다"는 생각과 "한 가족이 별 탈없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받은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47세가 되도록 아내와 아들,

아들과 딸은 "저도요. 아빠!"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1994년 2월 귀국 후 인사동 서울포교소를 참배했습니다만, 분위기에 익숙치 않아 2013년 1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베 교수는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매월 서신을 보내 주셨습니다. 자상한 편지와 오야소노시보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귀원할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이지요. 저는 비록 절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오른쪽 안 주머니에 "아침저녁 독경"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2013년 2월 초 서울포교소에 홀로 귀원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재주그룹을 안내해 주었고, 재주그룹에서 자주 상구보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에서 "당신이 가는 곳에 불화가 있겠습니다" 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세간법"에 익숙해 있던 저는 "불화라니 무슨 이런 영언을 주시는가?" 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추석이라 4형제 가족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일손이 넉넉하여 며느리와 딸은 노래방에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평소 예절도 교양도 있고, 시부모를 아주 잘 대해주는 며느리였고, 딸과도 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는데 하필 그날 둘 사이에 의견이 크게 충돌하여 며느리가 그만 친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종가 집에서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버렸으니 큰 사건이 생긴 것이지요. 아우도 "이번 일은 꼭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는 지적에 "당장 사돈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2주 전의 "영언"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불화가 있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세간법"과 "부처님 법"이 충돌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독경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저의 분노의 마음을 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아닌 친정아버지의 심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튿날 기도를 끝내고 방을 나오는데 집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틀림없이 용서하기 힘

들지만, 젊을 때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것이니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건 후 6개월 정도 주말마다 손자와 아들만 집에 다녀가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디만, 저희 부부는 며느리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며느리가 스스로 찾아올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아내에게 다가와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오면 친정에 온 것 같아요."

저에게 분노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친정아버지의 심정으로 며느리를 대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신노 가르침입니다.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감사합니다. 만약 신노 가르침이 없었다면, 세간법에 따른 종가집 중부의 도리를 내세워 며느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독설로 심하게 나무랐겠지요. 그랬다면 지금 어떠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다음은 작년 신노 가르침에 인도한 처조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카는 암에 걸렸는데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어렵게 설득하여 딸이 신노 가르침에 맺어지도록 했습니다.

약 2개월 후 아베 스킴이아가 병문안을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삿도 자비로 말입니다. 서울포교소와 부산정사를 차례로 방문한 다음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카가 중태임을 고려하여 병실에서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때 조카의 눈빛에서 신노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5개월간 저의 부부는, 스킴이아가 대신 받아준 상담접심 내용을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조카는 큰 고통은 없었으나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눈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조카의 49제가 끝날 때까지 조카만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울보가 되었습니다. 조카는 생전에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어머니가 걱정되어 "엄마, 나는 신체 일부가 불편해도 살아 있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침울한 병동 분위기를 밝게 하고자 떠나기 3일 전까지 다른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다는 말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조카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보살의 삶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을 위해 하고,

그 후에 자신을 위해 하라」는 신노 가르침에 입각한 삶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조카는 33세라는 짧은 생이였습니다만, 70살인 저보다 더 값진 삶을 살고 갔다고 믿습니다. 49제 기간 중 점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영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따듯~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이 쇼쥬신인 사마의 마음입니다."

조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어갈 2016년 연초에 아베 스킴이아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카를 위한 100일 기도가 끝났다는 요지였습니다. 언제나 소리없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시는 스킴이아 내외분의 진실된 섬김의 모습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작년과 금년의 한수행이 저에게 준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의 한수행에서는 '밀엄원발로참회문'의 깊은 뜻과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금년의 한수행에서는 신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사람인도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신노를 전해가겠다는 원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이 원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정답 : 1) 안성맞춤 2) 엉거주춤